

조각가 이용덕

아인슈타인적 사고를 역상조각으로 구현하다.

신기하다. 조각 작품 속의 인물이 시선을 따라 움직인다. 눈길을 사로잡는 마술 같은 형상에 어느새 작품 앞에서 발목이 묶였다.

바로 눈 앞인데도 가상현실의 3D 영상처럼 작품 속 형상은 정확히 가능할 수가 없다. 도대체 뭔가 싶어 조심스럽게 불룩한 조각상 표면에 손을 대본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속았다! 그 형상들은 튀어나온게 아니라, 오히려 구덩이처럼 움푹 함몰된 것이 아닌가.

일명 ‘착시조각’ 혹은 ‘역상조각’인 진면목에 탄복하는 순간이다. 마술의 주인공인 조각가 이용덕을 만났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작업실은 의외로 단출했다.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곳. 생각만으로도 뭔가 비밀스러운 장치로 가득할 것이라 상상했다. 하지만 용인의 작업실은 평범한 2층 구조의 조립식 건물이다. 다만 10여m는 족히 넘을 법한 천장에 완성작을 옮기는 데 사용했을 육중한 기중기가 잠시 멈춰서 있을 뿐이다.

“보통 음양(陰陽)을 구분해 일루전(Illusion)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제 작품에선 형상성을 결정하는 양(陽)조차 버려지고, 남겨진 음(陰) 안에서 다시 양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이지요. 음과 양에 대한 상관관계는 동양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초기엔 도대체 동양 사상이 뭘까..., 천편일률적인 서양 중심의 사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몰두했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 서양에 대한 열등감의 극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장사상과 같은 동양 사상을 접하다 보니, 우리가 딛고 선 자체가 이미 훌륭한 정신적 바탕이더군요. 결국 우리의 음양 사상을 어떻게 조형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과제만 남았지요.”

달변가였다. 마치 달관한 이가 한편의 시를 주저없이 써내려가듯 매끄럽다. 유려한 말솜씨는 확신에 찬 어조로 더욱 힘이 실렸다.

“흔히 조각은 ‘포지티브(Positive, 양각)’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작품은 음과 양이 뒤바뀐 ‘네거티브 조각(Negative Sculpture)’이죠. 상식적인 개념을 뒤집어볼 때 독창성은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핵심은 ‘트랜스퍼(Transfer)’ 개념입니다. ‘옮겨가기’ 혹은 ‘이동시킨다’는 개념은 ‘현실에 실재하는 허상’을 만들어냈고, 관객은 잠깐 사이에 ‘시지각적 착각’과 ‘사고의 혼란’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과연 우리가 믿는 존재의 실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물음을 갖게 되죠. 아마 삶과 죽음, 선택과 버림 등 상충된 고인의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용덕은 고민의 깊이에 비해 표현은 쉽고 간결하다. 우선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의 주변 인물이다. 출퇴근길 아니면 쇼핑이나 조깅, 드라이브할 때 만났을 것 같다. 특별한 구석도 진지한 표정도 없다. 너무 평범해서 어색할 정도다.

“일상에서 쉽게 포착되는 감동의 순간을 제 마음에 저장합니다. 수없이 많은 일상과의 만남 중에서도 인상에 남는 것을 별도로 저장하는 셈이죠. 일상을 되돌아볼 때, 제 생활에 정작 중요한 영향을 끼친 요소는 가족이나 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심결에 지나친 수많은 존재입니다. 한순간의 지나침 속에서도 망막에 각인된 ‘무엇’은 있게 마련이죠. 저는 그렇게 저장된 것 중에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자신만의 존재감을 되새기게 됩니다.”

현실과 실존사이

이용덕은 77학번이다. 격변기인 1980년대를 피해갈 수 없었다. 데모가 심한 시절, 모교인 서울대 정문과 후문에는 전경들이 항상 진을 치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나날을 보내던 청년 이용덕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 상상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인간의 한계상황에 대한 고민, 어둡고 무거운 것에만 집착하는 현실.... 자연스럽게 그의 화두는 ‘하루가 너무 허무하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생에 대한 지치는 한계상황을 보면서 몸도 정신도 지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교롭게도 일상에서의 존재감에 대한 고민은 이 시기에 시작됩니다. 현실 너머의 존재에 대한 고민은 결국 ‘실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더군요.” 허무함은 현실에서 피어난다. 그러나 이용덕은 그 ‘현실’을 넘어 더 본질적인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선택한 길이 독일 유학이다. 독일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어쩌면 고민의 끝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을 것이다. 독일에서 비로소 진정한 ‘초심’을 알게 된다.

“그전까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만 집착했다면, 독일에서 ‘왜?’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얻었지요. 유학생들의 초기는 그 작가적 물음에 대한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시기였습니다. 나아가 ‘나는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화두를 얻게 됩니다. 특히 베를린 예술대학교인 하데카(HdK, Hochschule der Künste)에 다니던 시절 홀로 남은 작업실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날 우연히 눈앞의 바닥에 떨어진 긴 막대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결에 집어든 막대기 가운데를 끈으로 묶어 공중에 균형 잡아 매달았지요. 그러다가 한쪽에 또다른 막대기를 얹으니 당연한 순리겠지만, 기울어지더군요. 맞은편에 동일하게 올렸을 땐 다시 균형이 잡혔죠. 또다시 다른 편에 옮겨가며 막대기를 하나둘 얹어보니 어느새 중심 한곳을 기준으로 수많은 막대기가 바닥위에 퍼져 떠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 ‘힘의 균형’이 만들어내는 환영을 맞본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구나. 전혀 새롭지도 않고 보잘것없던 나무 막대기가 결국 제 정신을 옥죄던 껍질을 깨준 겁니다.” 지금의 이용덕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평범한 일상 속 인물이란 사실도 그의 남다른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역상조각, 동서양의 평가

동서양의 감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이용덕의 역상조각(易象彫刻). 그 착시현상을 두고 동양과 서양의 평가는 어떻게 다를까.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작품을 두고도 반응은 다소 다르더군요. 우선 중국 베이징의 국립미술관 초대전 당시 관장은 작품에 드러나 음양과 존재론에 대한 내적인 개념을 쉽게 알아채더군요. 아마 동일한 문화권과 정신적인 원류가 같다는 배경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 대개 기법적인 면이나 현상적인 측면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아이디어적인 측면의 조형 기법이 눈길을 끌었나 봅니다. 어떤이는 너무 평범한 일상에서 찾은 신선한 발상이라며, 마치 ‘아인슈타인 사고를 조각품으로 구현했다.’고 소란을 떨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이용덕은 더 이상 우리나라 조각가가 아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 국제미술시장 전반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조각가로는 가장먼저 유수의 아트옥션에서 높은 가격에 매진 기록을 세웠는가 하면, 베이징과 마카오의 주요 미술관급에서 연달아 러브콜을 받은 사례는 거의 유일하다.

“저는 더 이상 미술을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한 것을 만들어 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유난히 긴 여운을 남긴다. 인위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일상에서 ‘선택’한 그만의 조형언어가 쉽게 가슴속 깊이 와 닿는 것 역시 우연은 아닐 것이다.

글 김윤섭(한국미술경영연구소소장, 미술평론가) 사진 최충식